

[5 ~ 6] 갑, 을은 조선 시대의 사상가이다. 물음에 답하시오.

갑 : 천하에 이(理) 없는 기(氣)가 없고, 기 없는 이가 없다. 사단(四端)은 이가 발하매 기가 이를 따르는 것이요, 칠정(七情)은 기가 발하매 이가 기를 타는 것이다.
 을 : 대저 이(理)는 기(氣)의 주재(主宰)요, 기는 이가 타는 바이다. 이가 아니면 기는 근거하는 바가 없고 기가 아니면 이는 의지하여 드러나는 바가 없다.

5. 갑, 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 [3점]
- ① 갑은 이와 기의 차별성을 강조하였다.
 - ② 갑은 칠정이 사단을 포함한다고 보았다.
 - ③ 을은 기의 본연을 회복하기 위한 공부를 중시하였다.
 - ④ 을은 말하는 것은 기이며 말하는 까닭은 이라고 하였다.
 - ⑤ 갑은 이의 자발성과 능동성을 인정하였고, 을은 부정하였다.
6.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갑과 을에게 공통으로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적절한 것은? [3점]

하늘은 이미 사람에게 선을 할 수도 악을 할 수도 있는 권형(權衡)을 주었는데, 이에 그 아래 면에는 또한 선을 하기는 어렵고 악을 하기는 쉬운 육체를 주었으며, 그 윗면에는 선을 즐거워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성(性)을 주었다. 만일 이 성이 없다면 우리 인간 중에 예로부터 조그마한 선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.

- ① 이(理)가 만물의 원리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.
- ② 성(性)이 사단과 칠정의 근거가 된다는 점을 모르고 있다.
- ③ 선한 삶을 위한 후천적 노력의 중요성을 소홀히 하고 있다.
- ④ 사덕(四德)이 행위를 통해 형성되는 덕목임을 모르고 있다.
- ⑤ 인간의 성(性)과 사물의 성(性)이 같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.

7. 다음에 나타난 의례에 대한 옳은 설명을 <보기>에서 고른 것은?

이제 곧 이승을 하직하고 떠나려는 사람의 머리맡에 정성스럽게 서서, 남은 사람은 매듭을 맺는다. 두 가닥의 색실을 한데 섞어 꼬아서 한 가닥으로 만들고는, 뒤쪽은 열십자가 되고, 앞쪽은 우물 정자가 되게 맺은 것이 이 가닥 저 가닥을 등글게 뽑아 내, 세 개의 고를 지으면, 그것은 서럽고 아름다운 꽃잎 모양으로 피어난다.
 - 최명희, 혼불 -

< 보기 >

ㄱ. 신령이나 조상을 추모하여 근원을 잊지 않게 한다.
 ㄴ. 성인(成人)으로서 자신의 역할과 임무를 깨닫게 한다.
 ㄷ. 죽음의 의미를 승화시켜 생명의 존엄성을 되새기게 한다.
 ㄹ. 자식을 통해 삶을 이어가는 계세(繼世)사상을 찾을 수 있다.

- ① ㄱ, ㄴ ② ㄱ, ㄷ ③ ㄴ, ㄷ ④ ㄴ, ㄹ ⑤ ㄷ, ㄹ

8. ㉠~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1. 민주주의의 형성 배경과 과제

1. 형성 배경

- 고대 그리스의 도시 국가에서 기본통 정립 ㉠
- 키케로의 대표되는 자연법 사상의 발전
- 계몽주의의 등장과 확산 ㉡
- 사회계약설 등장
- 시민 혁명 발생 ㉢

2. 과제

-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 극복 ㉣
- 지속적인 법과 제도의 개선
- 민주주의의 직접 성장 ㉤

- ① ㉠ - 정치 참여에 여성과 노예를 배제하면서 이루어졌다.
- ② ㉡ - 이성의 가치 및 자유와 평등이 강조되는 계기가 되었다.
- ③ ㉢ - 보통 선거 제도가 확립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.
- ④ ㉣ - 시민들의 참여 의식을 높임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.
- ⑤ ㉤ - 사회·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.

9. 갑, 을이 제시한 국가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? [3점]

갑	○ 자연의 제 1법칙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평화를 추구하는 '자기보존'이다. ○ 사람들은 스스로의 생존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 계약을 맺고, 법과 규범을 만들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 국가를 만든다.
을	○ 인륜(人倫)은 가족, 시민 사회, 국가라는 세 단계를 거쳐 변증법적으로 발전해 간다. ○ 국가는 객관화된 정신이기 때문에 개인이 자신의 객관성을 지니고 살게 되는 것은 오직 국가의 구성원으로서만 가능하다.

- ① 갑은 개인의 의지를 넘어서는 사회적 진화의 결과로 본다.
- ② 갑은 사회전체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본다.
- ③ 을은 인간이 필요에 의해 만들어낸 인위적인 산물로 본다.
- ④ 을은 개인과 사회의 자유가 실현되는 윤리적 공동체로 본다.
- ⑤ 갑, 을 모두 신이 부여한 사명을 실현하기 위한 터전으로 본다.

10. 그림의 대화는 서양 근대 윤리 사상가의 입장을 각각 반영하고 있다. 갑,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? [3점]



- ① 갑은 의무에 따르는 행위를 선한 행위로 본다.
- ② 갑은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의 유용성을 중시한다.
- ③ 을은 옳음에 의해 좋음이 결정된다고 본다.
- ④ 을은 선의지에 따르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간주한다.
- ⑤ 갑, 을은 도덕규범의 절대적·보편적 성격을 인정한다.

11. ㉠, ㉡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 [3점]

○ 아버지를 섬기는데 아버지에 효의 이치를 구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? 벗을 사귀고 백성을 다스리는데 벗과 백성에게 신(信)과 인(仁)의 이치를 구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? 모두 다 마음에 있을 뿐이니 마음이 곧 ㉠(理)이다.
○ 천지가 생기기 이전에 필경 ㉡(理)만 존재했다. 이가 있어서 곧 천지가 생긴 것이니, 이가 없다면 천지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 것도 존재할 수 없다. 이가 존재하면 곧 기가 유행하여 만물을 발육시킨다.

- ① ㉠은 개개 사물의 본성에 내재해 있다.
- ② ㉠은 선천적인 참된 앎[良知]을 의미한다.
- ③ ㉠은 지행합일(知行合一)을 통해 발현된다.
- ④ ㉡은 우주 만물을 형성하는 근본 원리이다.
- ⑤ ㉡은 마음의 인식작용을 떠나 독립적으로 존재한다.

12.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?

○ 먼저 깨치고 나서 나중에 수행한다는 뜻은 연못의 얼음이 전부 물인 줄 알지만 그것이 태양의 열을 받아 녹아지게 되는 것처럼 범부가 곧 부처임을 깨달았으나, 법력(法力)으로써 부처의 길을 닦게 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.
○ 비록 본래의 성품이 부처와 다르지 않음을 깨달았으나, 오랫동안 습관은 갑자기 버리기 어렵다. 그러므로 깨달음 이후에 꾸준한 수행을 통해 공을 이루어야 성인이 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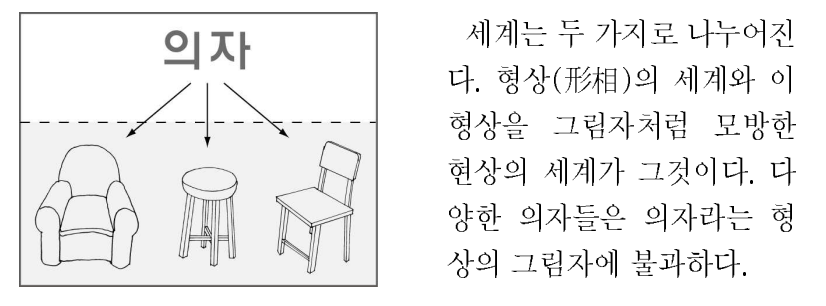
- ① 교종을 바탕으로 선종과의 합일을 지향하였다.
- ② 종파 간의 대립을 통합하는 화쟁 사상을 정립하였다.
- ③ 교리 연구와 참선을 병행하는 교관겸수를 주장하였다.
- ④ 화엄종의 입장에서 여러 갈래의 교종 사상을 종합하였다.
- ⑤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한다는 정혜쌍수를 주장하였다.

13. 다음 글에 나타난 윤리적 덕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“생일.....축하.....!” 앵무새는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. 누나가 건네 준 카드에는 단정한 글씨로 ‘생일 축하한다. 내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는데.....’라고 쓰여 있었습니다. 생일 축하! 목소리 없는 누나가 난생 처음 동생인 나에게 들려준 말이었습니다. 앵무새한테 그 한마디를 훈련시키기 위해 누나는 그렇게 여러 날 비밀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. 나는 쏟아지는 눈물을 감추며 미역국을 먹었습니다.

- ① 이웃 간에 일체감을 형성하는 것이다.
- ② 동기간(同氣間)에 보살피고 사랑하는 것이다.
- ③ 경험과 지혜가 풍부한 연장자를 공경하는 것이다.
- ④ 음양의 원리를 바탕으로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것이다.
- ⑤ 친소(親疎) 의식을 버리고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는 것이다.

14. 다음과 같은 관점을 가진 사상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?



- ① 신(神)이 우주 만물에 내재한다고 보았다.
- ② 감각적인 경험을 사유와 지식의 근원으로 보았다.
- ③ 선악(善惡)은 판단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다.
- ④ 이성을 통해 보편적인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.
- ⑤ 지식은 일상 생활에 도움이 될 때 가치가 있다고 하였다.

15. 19세기 조선 시대의 사상인 (가), (나)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?

[3점]

(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그 마음을 지키고 그 기운을 바르게 하고 한울님 성품을 거느리고 한울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자연한 가운데 조화가 나오는 것이다. ○ 부하고 귀한 사람 이전 시절 빈천(貧賤)이요 빈하고 천한 사람 오는 시절 부귀로세.
(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학문은 동·서양을 불문하고 그 실용을 먼저하고 그 글의 화려함[文華]은 뒤로 삼아야 한다. ○ 조선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양반의 전횡에 있기에, 문벌을 폐지하고 인재를 선발하며, 외국의 종교를 끌어 들여 교화를 도와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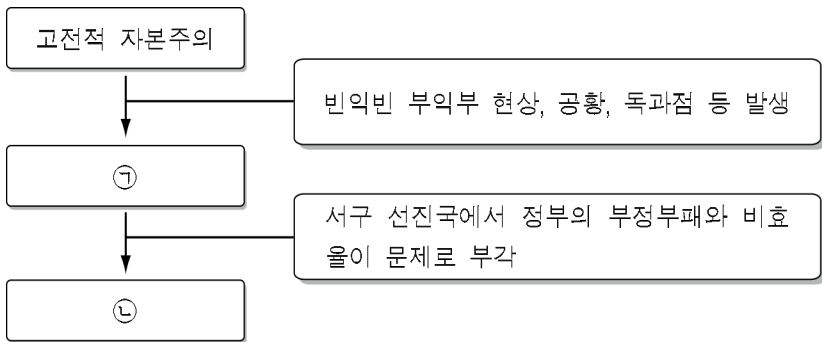
- ① 성리학적 이념의 대안을 제시한다.
- ② 동양의 도(道)를 변화의 원리로 삼는다.
- ③ 민족의 정체성을 중화(中華)에서 찾는다.
- ④ 서구 문물을 사회 변화의 동력으로 파악한다.
- ⑤ 서양의 기술을 주리론적 입장에서 바라본다.

16. 다음은 서양의 두 사상가의 주장이다. ㉠, ㉡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? [3점]

○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그 자체의 목적을 지니고 있다. 인간이 달성해야 될 목적은 선의 실현에 있다. 따라서 모든 인간 활동의 목적은 '덕과 일치하는 영혼의 활동'으로 정의되는 선을 추구하는 것이다. 인간의 최고 목적인 선은 ㉠행복으로 귀착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 행복한 상태이다.
○ 신과 같이 자유롭기 위해서는 ㉡행복이 우리들의 의식 내면에 자리해야 하고 덕으로 구현되어야 한다. 덕은 우선 평정으로 나타나며 보다 바람직한 덕은 쾌적하고, 단순하며, 온화한 모습으로 나타난다. 따라서 고상한 쾌락이나 정신적인 가치는 육체적인 만족보다 우월하다.

- ① ㉠은 이성으로 정념과 감정을 제거함으로써 얻어진다.
- ② ㉠은 무한한 필연성의 인과 관계를 깨달음으로써 얻어진다.
- ③ ㉡은 고통이 소멸되어 마음이 평온할 때 실현된다.
- ④ ㉡은 자유로운 결단을 통해 신을 믿고 섬길 때 실현된다.
- ⑤ ㉡은 영혼의 수련을 통해 참된 앎을 인식할 때 얻어진다.

17. 그림은 자본주의의 전개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. ㉠, ㉡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 [3점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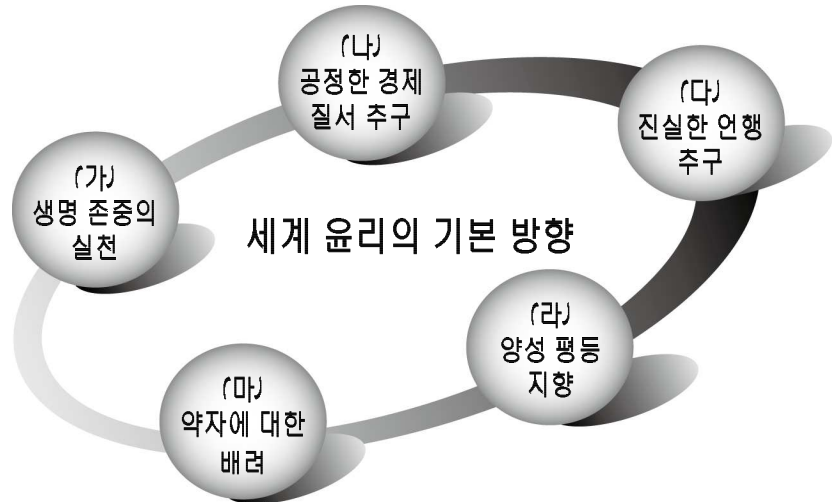
- ① ㉠은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.
- ② ㉠은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.
- ③ ㉡은 소극적 자유보다 적극적 자유를 중시한다.
- ④ ㉡은 개인의 능력과 업적에 따른 차등적 분배를 인정한다.
- ⑤ ㉠, ㉡은 타인과 바꿀 수 없는 개인의 가치와 존엄성을 중시한다.

18. 밑줄 친 '덕(德)'을 기르기 위한 수양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[3점]

그대는 지금에야 그것을 알았는가? 유우씨는 태씨에게 미치지 못하는 분이였다. 유우씨는 인(仁)을 지닌 채 사람들을 모으려 하였고 그런대로 인심도 얻었다. 그러나 아직 시비(是非)의 영역에서 벗어나지는 못하였다. 반면, 태씨는 누워 잠잘 때는 편안하였고, 깨어 있을 때는 명칭하여 스스로를 말[馬]이라고도 하고, 혹은 스스로를 소[牛]라고도 하였다. 그의 지혜는 참으로 믿을 수 있었고, 그의 덕(德)은 참으로 진실하였다.

- ① 사물의 이치를 객관적으로 탐구한다.
- ② 일상 생활에서 의로운 행위를 반복한다.
- ③ 조용히 앉아 구속하는 일체의 것을 잊는다.
- ④ 선한 본성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를 기른다.
- ⑤ '나'라는 의식을 일으키는 삼독(三毒)을 제거한다.

19. 그림은 세계 윤리의 기본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. (가)~(마)에 부합하는 진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

- ① (가) - 도덕적 책임의 범위를 모든 생명체로 확대한다.
- ② (나) -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준에 따라 자원을 배분한다.
- ③ (다) - 언론의 자율 규제 기능을 강화하여 정보 왜곡을 방지한다.
- ④ (라) - 동반자 정신을 갖고 서로 존경하고 사랑한다.
- ⑤ (마) - 사회적 지원을 최소화하여 개체적 독립성을 보장한다.

20. 다음 글에 나타난 관점과 부합하는 진술을 <보기>에서 고른 것은?

이 세상에 나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. 아름다운 연꽃도 저 혼자 된 것이 아니며, 나뭇잎 하나도 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. 돌 하나도, 먼지나 티끌 하나도, 새 한 마리나 사슴이나 코끼리 한 마리도 홀로 존재하지 못한다. ...(중략)... 이것이 있는 것은 저것이 있기 때문이고, 저것이 없음은 곧 이것이 없기 때문이다. 이것의 태어남은 저것의 태어남 때문이며, 이것의 죽음은 곧 저것의 죽음 때문이다.

- < 보 기 >
- ㄱ. 모든 존재는 상호의존적인 관계로 맺어져 있다.
 - ㄴ. 우연히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 것도 없다.
 - ㄷ. 다양한 현상의 이면에는 변하지 않는 궁극적 실체가 있다.
 - ㄹ. 생명체는 영속적인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며 서로 협력한다.

- ① ㄱ, ㄴ ② ㄱ, ㄷ ③ ㄴ, ㄷ ④ ㄴ, ㄹ ⑤ ㄷ, ㄹ

※ 확인사항
○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(표기)했는지 확인하시오.